



5면

국제스포츠 유치 역량 강화

전주매일

www.jjmaeil.com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5년 11월 10일 월요일 (음 9월 21일) 제3854호

대표전화 (063)288-9700

새만금, 산업·정주 결합 통합형 고용 플랫폼으로

지난해 12월 특별법 의거 새만금 산단 고용특구 지정
일자리지원단 개소 7개월 만에 취업연계 183명 달성
고용 안정성 강화 노력 두드러져... 네트워크 활성화도

전북자치도가 새만금 고용특구를 통해 산업전환 시대의 새로운 고용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12월 27일 전북특별법 제64조에 따라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고용특구로 지정된 후, 올해 3월 새만금고용특구일자리지원단을 개소했다. 지원단은 출범 7개월 만에 183명의 취업 연계라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새만금 고용특구는 이차전지·모빌리티·신재생에너지·첨단소재 등 미래산업이 집중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1~9공구, 약 1,846만㎡)를 대상으로 한다. 자동차·조선 등 전통 제조업 중심이었던 지역 산업구조가 첨단 산업으로 급속히 전환되면서, 대규모 기업 입주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함께 선제적인 인력수급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출범했다.
도는 새만금 권역의 산업구조 변화에 맞춰 인력수급 및 고용정책을 관리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지역 인재의 산업현장 투입부터 고용유지, 복

리후생 지원까지 아우르는 종합 고용 지원체계를 구축해 산업 성장과 고용 안정을 동시에 달성하는 지속가능한 고용생태계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
새만금고용특구일자리지원단은 전북 산학융합원 내에 설치돼 군산시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운영 중이다. 지난 달 말 기준 구직자 586명을 발굴하고 이 중 183명의 취업을 이뤄 당초 목표인 150명 대비 122%를 달성했다.
업종별로는 이차전지가 105명으로 가장 많았고, 첨단소재 21명, 모빌리티 16명, 신재생에너지 8명 순이었다. 이는 새만금 지역의 이차전지 산업 성장세를 반영한 것으로, 현장 밀착형 채용 연계 활동이 실질적 고용 창출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원단은 입주기업 인력수요 조사, 고용지원협의체 운영, 고용정보망 구축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새만금 JOB going with 이차전지' 취업박람회를 비롯해 3차례의 박람회를 개최했으며, 찾아가는 상담소 운영

과 일자리 매칭데이를 통한 현장 면접 등으로 기업과 구직자를 직접 연결하고 있다.
고용 안정성 강화를 위한 노력도 두드러진다. 10월 말 기준 106명에게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했고, 10개 기업에 복리후생을 지원해 인력 이탈 방지와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있다.
고용 네트워크 활성화에도 주력하고 있다. 군산시, 군산고용센터와 MOU를 체결했고, 전북자치도·새만금개발청·군산시 등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했다. 산단입주기업 간담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사람인 구인서비스 등을 통한 상시 매칭 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도는 연말까지 기업간담회 및 현장 방문을 확대하고, 내년도 인력수급 현황 조사를 실시해 기업 애로사항을 반영한 맞춤형 고용정책을 강화한다.
김인태 전북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새만금 고용특구는 단순한 채용 지원을 넘어 산업정책·정주정책이 결합된 통합형 고용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기업투자 확대와 인력수급 안정, 고용유지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해 새만금이 산업전환 시대의 선도적 고용특구 모델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지난 7일 전주N타워컨벤션에서 '2025 전북농업인의 날' 기념행사가 열린 가운데, 김관영 도지사, 임승식 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장, 이정환 농협중앙회 전북본부장, 황양택 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북 농업의 힘,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

2025 전북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노고 격려
농생명산업대상 시상식·농업인단체 비전 선포식도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7일 전주N타워컨벤션에서 '2025 전북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열고 한 해동안 전북농업 발전을 위해 헌신한 농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농업인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고 농업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한 자리로, 도는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에 앞서 기념행사를 개최했으며, 당일에는 도내 각 시군에서 기념식이 열릴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는 김관영 도지사, 임승식 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장, 이정환 농협중앙회 전북본부장, 김

장, 황양택 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장과 농업인단체 임원 등 200여명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기념식은 제3회 농생명산업대상 시상, 농업발전 유공 표창자 수여, 감사패 전달, 농업인단체 비전선포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특히 행사에 앞서 열린 '나는 농부다'(채상현 연안대 교수) 특강에서는 농업인의 삶과 땅의 가치를 돌아보며 농업인의 자부심과 책임의식 다스림 되새기게 하며 큰 공감을 얻었다.
이어 열린 제3회 농생명산업대상 시상식에서는 △정운섭(군산, 한우

농가) △익산 상당면 회산마을 △고운주(김제, 다복솔식품) 등 3곳(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농업발전 유공 표창은 박성호(정읍), 한속화·김병호(완주), 황민화(장수), 서영수(고창) 등 5명에게 수여됐다.
또한 농업인단체연합회에서 농업인과의 정책간담회 등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농업·농촌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는 데 기여한 공로로 임승식 전북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장, 이정환 전북도청 협치농정담당에게 감사패가 전달됐다.
행사를 주관한 황양택 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 회장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국가 책임농정 실현을 통해 농업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가야 한다"고 다짐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지사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7일 국산항을 새만금시대에 걸맞도록 안정적인 운항과 원활한 통항을 위해 상시준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이 의원이 주장을 분석한 결과 국산항에 퇴적되는 토사량은 매년 320만㎡ 인데, 최근 4년 준설량은 98.4만㎡로 퇴적량의 30%에 불과한 것으로



"환태평양 시대, 군산항 안정적 운항 위한 상시준설 체계 시급"

민주 이원택 의원, "최근 4년 준설량 98.4만㎡로 퇴적량의 30%에 불과
해수부, 군산항 준설예산 타 항만에 비해 적게 책정... 준설계획 수립을"

밝혀졌기 때문이다.
7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2025년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군산항에 퇴적되는 토사량에 비해 준설량이 턱없이 부족해 안전한 수심확보가 어렵고, 이로 인해 대형선박 입항 기피 등으로 국산항의 항만 경쟁력이 급속

히 저하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군산항은 금강하구둑이 건설되면서 토사량이 급속도로 유입되어 항만운항을 위해서는 해마다 유지 준설이 필요한 항만이다.

따라서 퇴적량에 비해 준설량이 매우 적어 항만으로서의 기능이 저하되고 있으며 이는 해양수산부가 국산항 준설예산을 타 항만에 비해 적게 책정했기 때문이라는 게 이 의원의 판단이

다.
충청남도를 비롯한 타시도의 사례를 살펴보면 광역항 2023년도 준설예산은 전년 대비 2.4배로 증가했고 경인항은 전년 대비 13배로 급증했지만, 국산항은 겨우 1.3배에 그쳐, 해수부가 국산항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같은 국산항의 준설량 저하로 2024

년에는 전년 대비 국산항 물동량 6% 감소, 자동차 물동량 28%감소 등 항만 경쟁력이 심각하게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원택 의원은 "군산항은 전북 유일의 국가무역항으로 호남권 산업·물류의 중심항만인데 해수부가 방치하고 있다"면서 "해수부는 국산항의 안정적인 운항과 원활한 통항을 위해 준설예산 확대 및 준설시기, 구역, 준설량 등 수요조사를 통해 준설계획을 수립해 상시준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한 줄 소식

대통령실 "원잠 선체 韓서 건조, 한미 정상 간 논의한 내용"



#내장산 우화정

#천연기념물 단풍나무

#내장산 단풍터널

단풍명소 내장산

빨강, 주황, 노랑...
다채로운 색으로 물든 단풍잎
보는 이의 마음을 설레게 한다.

사랑하는 이와 울긋불긋 단풍 바라보며
내장산의 정취를 만끽하는 이 가을날...

